

# 조계의 법통이 한반도에 이르니 아홉 산에 법향 드높아

## 38 조계정맥 전수도량 보림사

전남 장흥 가지산 보림사(寶林寺)는 한반도로 전해진 조계의 선맥이 웅비(雄飛)한 도량입니다. 잘 알다시피 도의(道義) 국사는 당(唐)에서 서당지장(西堂智藏 735-813) 선사로부터 선의 정맥(正脈)을 받아 온 우리나라 최초의 선사입니다. 그의 시대는 교학의 견고한 이념이 지배한 때라 선법을 펼칠 여지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도의 국사는 설악산 동쪽 계곡 진전사에서 40년을 칩거 했습니다. 이 스토리가 낯설지 않은 것은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와 양무제를 만났으나 인연이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송산에 들어가 칩거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의 국사를 한국의 달마라고 칭합니다.

도의 국사의 법을 이은 제자는 염거(廉居 ?~844) 선사이고 다시 그의 제자 보보체징(普照體澄 804-880) 선사가 법을 이어 가지산 보림사를 창건해 구산선문의 일파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활짝 열었습니다. 처음 절의 이름은 가지산사(迦智山寺)였는데 체징 선사 입적 후 현강왕이 시호와 탑호를 내리면서 절 이름도 보림사라는 고쳐 부르게 했습니다.

왕이 존경하던 국사나 왕 등 큰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며 탑호와 시호를 내리고 그 유지가 후세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은 흔하게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머물던 절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한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듯합니다. 더구나 보림사라는 이름은 부처님에서 가섭으로, 가섭에서 서천(西天) 28조 달마로 다시 중국에서 달마를 초조로 하여 제6조 혜능으로 면면히 상승되어 온 선의 정맥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혜능 대사가 머물며 법을 펼친 곳이 바로 광동 조계산 보림사였던 것입니다. 조계종이라는 이름도,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를 품은 그 조계산의 이름도 모두 6조로부터 전승되어 온 선맥이 우리 산하에 흐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서두에 '보림사(寶林寺)는 한반도로 전해진 조계의 선맥이 웅비(雄飛)한 도량'이라고 표현한 것도 6조의 맥을 이은 마조의 제자 서당지장으로부터 법을 인가받은 도의 국사의 법을 이은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이기 때문입니다. 보림사라는 이름의 권위(?)는 인도와 중국에서도 부처님의 정법을 이은 사찰의 이름으로 존재해 왔다는 데서도 확인됩니다.

가지산문의 보림사가 조계선의 맥을 이은 도량이라고 하여 다른 산문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산선문을 개창한 선사들은 모두 6조 혜능의 선법을 전한 결승들이었습니다. 입당구법(入唐求法) 후 귀국하여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산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홉 산에 각자의 선법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시절이 선불교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까지 거의 100여 년을 두고 구산선문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전법의 계보를 놓고 볼 때 가지산문이 조계선맥을 이은 직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산선문의 시초는 남한 실상사 즉 실상산문입니다. 도의 국사가 설악의 진전사에서 칩거하는 동안 당에서 귀국한 흥척(興陟) 선사가 실상산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본 연재 제7회 참조) 여기서 구산선문이 열린 시대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선문을 연 개산조가 언제 귀국했는가를 짚어 봄으로써 각각의 선문이 열린 순서를 짐작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계의 선맥을 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100여 년을 두고 열린 구산선문이고 보면 개산 순서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황을 살펴봅니다.

가지산문의 개산조인 도의 국사는 821년에 귀국하지만 40년간



보조선사 창성탑과 비는 장흥 보림사 경내에서 천년이 넘는 세월을 지키고 있다.

칩거를 하고 그의 법손 체징 선사는 840년에 귀국합니다. 실상산문을 연 흥척 선사는 826년에 귀국했고, 봉림산문을 연 현욱(玄旭) 선사는 837년에 귀국하여 제자 심희(審希)가 왕원에 봉림사를 세워 봉림산파를 이루었습니다. 현욱은 귀국하여 처음에는 실상사에서 머물렀고 뒤에 혜묵산 고달사에서 법을 폈습니다. 곡성 태안사 동리산문의 개산조 혜철(惠徹) 선사는 839년부터 태안사에서 선지를 편 것으로 전합니다. 사자산문의 개산조 도윤(道允) 선사는 혜능의 법을 이은 남전보원(南泉普願)으로부터 인가받고 귀국해 쌍봉사에 머물렀고 그의 제자 징효(貞孝)가 지금의 법흥사인 흥령사를 세워 사자산문을 열었습니다. 징효절종은 831년에 태어나 895년에 입적했습니다. 성주산문을 연 무염(無染) 선사는 도의 국사가 귀국하던 821년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고 사굴산문의 법일

적혀 있습니다. 대웅보전 오른쪽 뒤편에 보초체징 선사의 부도 창성탑(彰聖塔) 보물 제157호와 탑비(보물 제158호)가 있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부도를 친견하려 갑니다. 군데군데 훼손이 되긴 했지만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몸매를 자랑해 온 창성탑은 팔각원당형이며 화려하지 않게 절제미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스승 염거 선사의 부도는 우리나라 팔각원당형 부도의 시원(始原)이고 다시 그 스승의 부도는 탑에서 부도의 형태가 파생하는 과도기적인 조형(진전사 부도)이니 이 창성탑은 팔각원당형 부도의 초기 양식으로서 한 모범이겠습니다. 체징 선사가 입적하고 4년 뒤(884년)에 세워졌습니다. 높이 4.1m. 팔각 지대석 위에 상중하대석을 올렸는데 하대석과 중대석의 사

## 도의 국사의 법손 체징 가지산문 열어... '창성탑' 건재 왕이 내려 준 절 이름 '보림사' 정통 선맥의 도량 상징

(號) 선사는 847년에 귀국했습니다. 수미산문의 이엄(利嚴) 선사의 귀국은 911년의 일이고 회양산문의 개산조 경양(鏡讓) 선사는 고려 태조 7년인 924년에 귀국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산선문은 입당구법승들이 귀국하여 각자의 인연지에서 산문을 열어 선법을 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림사는 조계 정맥의 선법(禪法)답게 정갈하고 고즈넉합니다. 왕방울 눈을 부라리는 금강역사와 사천왕이 버티고 앉은 사천문을 들어서 단아한 삼층석탑에 배례하고 대적광전에 들어가 체징 선사의 시절에 철로 조성된 비로자나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대웅보전을 거쳐 조사전에 들어가면 해동초조 도의 국사와 제2조 염거 선사 그리고 제3조 체징 선사의 영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체징 선사의 영정은 '개산조보조선사진영(開山祖普照禪師眞影)'이라고

이에 구름문양을 강조한 곱대를 따로 올려 웅장한 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뜬눈을 뜨고 있는 느낌을 주는 창성탑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시작되는 장맛비에 몸을 맡깁니다. 그 탑이 세워진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배례하고 스승의 법향을 느끼려 했을가를 생각하면 잠시 비를 맞는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창성탑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선불교의 발원수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을 듯합니다. 부디 장흥 보림사 갈 기회가 있다면 구산선문과 체징 선사에 관한 역사를 살펴 보고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창성탑비는 빗줄기에 몸을 내 놓고 있지만, 어디 이런 비 한 두 번 맞은 줄 아느냐는 듯 무뎠게 그 수직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영(金穎)이 찬한 비문에 의하면 체징 선사도 당시의 선사들과 지식계

층이 그랬던 것처럼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국내의 스승보다 뛰어난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비문에는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식을 찾아 15주를 편벽하면서 온 누리가 좋아하고 하고자 함이 같으며 성상(性相)이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이에 '우리 조사께서 말씀하신 바에 더할 것이 없는데 어찌 수고로이 멀리 가겠는가' 라고 이르며 발길을 멈추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무슨 소식일까요? 당나라에 가르침을 받을 스승이 없었다는 말이라면 체징 선사의 교만이 드러난 것이겠습니. 그러나 이 대목은 이미 도의 국사로부터 정맥을 이은 염거화상의 제자의 눈에 조계 선법을 뛰어넘을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아 당나라에 있으나 신라에 있으나 한 맛의 법을 누린다는 의미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비문에는 도의 국사가 서당 선사에게 심인을 전수받고 귀국하여 전법의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이 달마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과 같음을 언급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또 "달마는 당나라의 제1조이며, 우리 신라에서는 도의대사가 제1조, 염거선사가 제2조, 우리 보초체징선사가 제3조이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대적광전에 모셔진 철조 비로자나부처님이 조성된 경위도 기록되어 있으니 창성탑비문의 내용들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대로 '오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문의 후반부에는 가지산사가 체징 선사에 의해 창건된 것이 아니라 이미 원표대덕(元表大德)이 거처하던 곳이며 장생표(長生標)가 서 있다는 것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생표는 보림사에 1000년 넘도록 서 있다가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다니 아깝기 그지없습니다.

보림사를 나와 주차장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동부도발이 보입니다. 동부도발의 제일 앞단에는 '보림사동부도' (보물 제155호)란 이름의 팔각원당형 부도가 있습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의 양식이며 그 주인은 체징 선사의 시대를 함께 살다간 고승일 것 같지만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아래로 6기의 부도가 좌선에 든 채 비를 맞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고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주차장을 나와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 영암 방향으로 600m 가량 가다가 아랫쪽으로 난 길을 따라 가면 언덕위에 서 있는 두 기의 부도가 보입니다. 보림사 서부도발입니다. 여기서도 '보림사서부도' (보물 제156호)란 이름의 팔각원당형 부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역시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부도전(浮屠殿)으로 보이는 건물의 뒤편 언덕 위에 다소 훼손이 되었지만 그 전체적인 몸매는 환하여 보기 좋은 부도 한 기가 서 있습니다.

해 저물 녘, 산을 타고 오르는 운무를 배경으로 모퉁이 간 아들을 기다리는 자세로 서 있는 부도를 바라봅니다. 구산선문의 시대를 살다간 고승들은 참으로 행복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임연태 (시인·본지논설위원)

보림사동부도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사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기마을

## 민속죽염 22년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듬고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small>(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small>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후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임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동안 비타면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 여기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육신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달과다, 문명부족, 대도시 등 현대 문명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외상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묘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정 속에 여겨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두맛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활력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특원월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